

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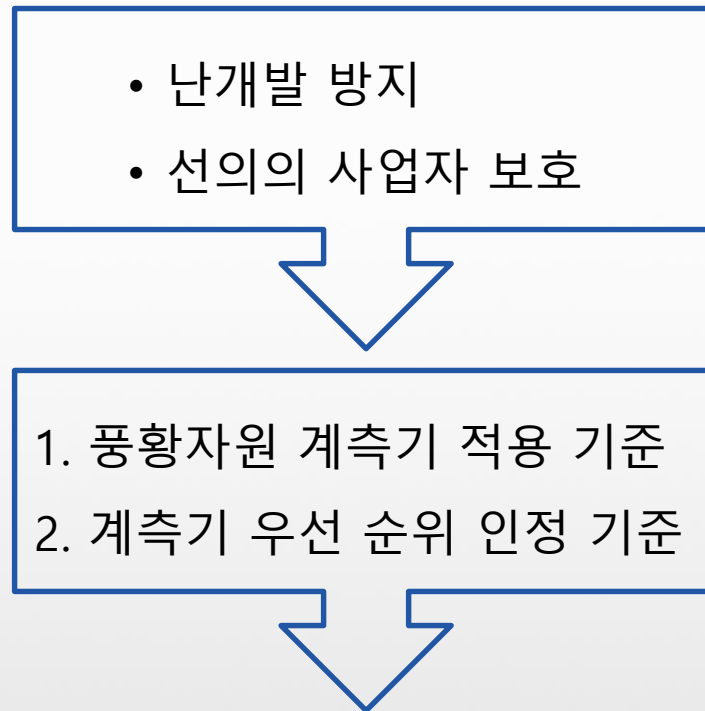


산업부 고시 제2018-219호(2018.12.10)

2019년 6월 14일 (금)
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 석 우 (wemins@kier.re.kr)

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수립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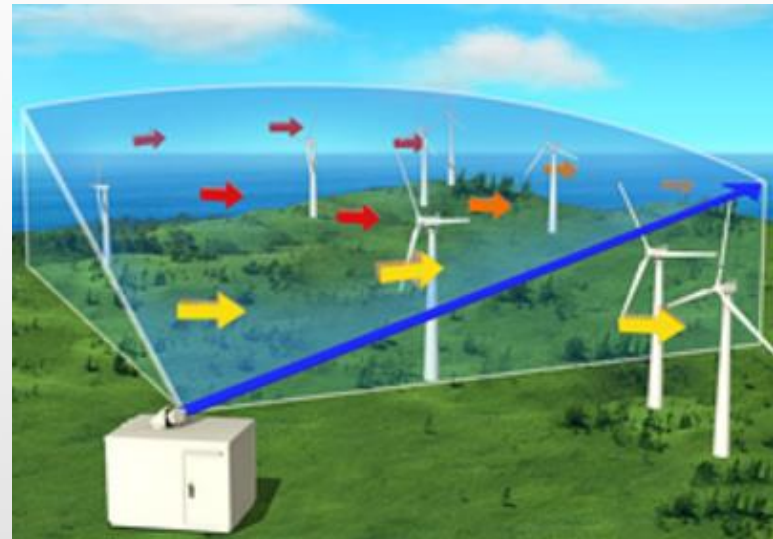


2018년 이후 약 17개 발전사업 허가(약 3GW)에 적용한 결과 보완 필요

풍황자원 계측기 적용 기준

1. 풍황자원 계측기 종류 인정 범위

나.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, 풍향, 기타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



출처 : Mitsubishi Electric

2. 풍황자원 계측기 높이

다. 계측기의 높이는 최소한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높이(hub height)의 3분의2 이상
이어야 함

-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풍력발전기와 상이한 풍력발전기 설치 시 ?
- 측정 고도의 범위(최소 및 최대)가 아닌 최소 높이만 규정



계측기 규정 도입 취지는 사업자가 직접 풍황자원 측정 유도

3. 풍황자원 계측기 유효지역

가.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: 반지름 5km 이내

나. 산악, 심한 비탈(경사도 17° 이상)이 있는 복잡지역 : 반지름 2km 이내

- 해상의 경우 반경 5km는 확대 필요 의견
- MEASNET은 기상탑의 Representative radius로 10km 제시
- 서남해안의 경우 조밀히 분포한 섬들이 기상탑 상관도 저하

4. 계측기 설치 지역에 따른 유효지역 변화

- 다.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: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
- 라.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: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

- 섬에 기상탑 또는 라이다를 설치한 경우 위 "다"항 적용
- 공유수면에 설치되었을 경우 "바다"와 "바닷가" 구분 필요

□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6. 3., 2017. 3. 21.>

1. "공유수면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- 가. 바다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「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
- 나. 바닷가: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
- 다. 하천·호소(湖沼)·구거(溝渠),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(水流)로서 국유인 것

공유수면법	<p>토지</p> <p>지적공부선</p> <p>만조수위선</p> <p>간조수위선</p> <p>간석지</p> <p>영해</p> <p>배타적경제수역</p> <p>12해리</p> <p>200해리</p> <p>바닷가</p> <p>공유수면</p>
측량·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	<p>토지 ← → 해면</p> <p>지적법상 지상경계(만조수위선)</p>

5. 부지 중복의 경우 우선권 인정 절차 (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만 적용)

-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유효기간중에 유효지역에 풍력발전 사업 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아 사업 불허 (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)



- 설치를 위한 인허가권을 지닌 지자체가 필터링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
- 우선 설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정 : 알박기 배제 원칙과 충돌
- 현재도 타 사업자가 설치한 계측기 측정 자료를 근거로 허가 신청(동의서 포함)

-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
-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,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



- 설치 허가 후, 계측기는 설치하였으나 실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
- 또는 Data Availability가 95% 미만인 경우
- 우선권 기산일 : 측정 완료 시점 ? 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일 ?

감사합니다



The KIER, a global energy innovator, does its best in pursuing its mission to invent world-class energy technologies based on open innovation, life-cycle research quality assurance, participatory and open communication. Therefore the KIER will become the best energy technology R&D institute in the world,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wealth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.